

순천에 대규모 호텔·컨벤션·워터파크 구축

시, 제너시스BBQ와 특급호텔 건립 등 투자협약 체결 2500명 고용 창출·코스트코 연계 복합클러스터 구축

오는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와 워터파크 등 복합 관광 인프라가 들어선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제너시스BBQ와 함께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특급호텔 건립 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순천시는 글로벌 K-푸드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 그룹과 손잡고 순천 경제 지도를 바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제너시스BBQ는 오는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등 최적의 부지에 500~

10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시가 구상하는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수용할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제 수준의 숙박·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면 체류형 관광 기반 순천의 투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특급 호텔 등 관광 인프라와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를 양대 축으로 구축해 전남 동부권을 넘어 남해안권 경제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은 "K-비비큐가 이끌어낸 K-푸드,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을 마중물 삼아, 고향 순천을 광주·전남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건립해 지역 문화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BBQ의 'Best of the Best Quality(최상의 품질)' 정신과 순천의 세계적인 상태 자산이 만나 특급 호텔을 세우게 됐다"며 "이번 황금빛 투자는 30년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순천이 남해안권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순천시, 제너시스비비큐, 전남도 관계자들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



여수 야경

여수 야간관광으로 도시 매력 알린다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여수밤바다·콘텐츠 등 홍보

여수시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야간관광 특별관'을 운영, 여수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매력을 수도권에 집중 홍보한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관광 박람회로 전국 200여개 기관이 참여해 30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행사와 학술회의,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람회 테마관 내 조성되는 '야간관광 특별관'에는 여수시를 비롯한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참여한다. 각 도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여수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여수 밤바다 야경 명소와 야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 대표 야간관광 자원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관광 누리집 QR코드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여수 관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공식 SNS 구독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해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경쟁력을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지속적인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야간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영유아 독서 첫걸음 '북스타트' 추진

곡성군이 영유아 가정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4월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북스타트 사업은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유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북스타트(2024~2026년생), 북스타트 플러스(2022~2023년생), 북스타트 보물상자(2020~2021년생) 등 3단계로 미취학아동 총 310명에게 선착순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이다. 책 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 예요백, 책 읽는 법 가이드북, 소정의 선물 등이 포함돼 영유아 가정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청 방법은 곡성어린이도서관 또는 읍과도서관 방문에 보호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출생신고 시 '출산 관련 서비

스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 가정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4월 15일에는 우기운 작가의 '책이 좋아지는 그림책 놀이' 부모교육 특강을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즐겁게 읽는 방법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 놀이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4월~11월), '부모와 함께하는 책놀이'(5월)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곡성어린이도서관을 거점으로 운영해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곡성=김유연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노후 시설 새단장

고흥군은 봄을 맞아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군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은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대표 휴식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다. 군은 불법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공원 전반에 걸쳐 새 단장을 추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공원 내 산책로와 쉼터를 보수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했다. 또한 공원 전반에 걸쳐 환경 정화 활동과 녹지 관리도 함께 실시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 백운산 정상, 제이름 찾아야”

주민들 “과거부터 ‘송낙봉’으로 불러” 증언

전남 동부권 명산인 광양 백운산 정상 봉우리 이름이 '송낙봉(松嶽峯)'으로 불러 왔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밝혀짐에 따라 제 이름을 찾아 명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백운산 정상 봉우리는 이름을 제대로 몰라 1997년 광양역불산회가 산 정상에 '백운산 상봉(1218m)'이라는 표지석을 맨 처음 세우면서 지금까지 '백운산 상봉'으로 불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백운산 정상 봉우리 아래 첫 등네인 해발 700여m의 옥룡면 동곡리 논밭과 진들마을 등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백운산 정상은 옛날부터 송낙봉으로 불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옛 이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낙(松嶽)은 '소나무 겨우살이로 만든 여승(女傭)이 쓰는 모자'를 의미하며, 삿갓처럼 뾰족한데 백운산 눈길



광양 백운산 정상인 해발 1222m의 송낙봉은 여승이 쓰는 모자처럼 정상이 삼각형으로 뾰족하다. 원안 사진은 송낙.

마을에서 바라본 정상 봉우리는 여승이 쓰는 모자처럼 삼각형이다. 백운산 정상 진들마을에서 5대째 살아가고 있는 박정수씨(60)는 "150여년 전부터 현재 집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옛 부터 백운산 정상은 송낙봉으로 불렀다"며 "송낙은 승려가 쓰는 모자로 봉우리가 뾰족하게 생겼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광호 전 광양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83)은 2006년 발간된 '광양시지'에서 지난 2002년 '광양시지' 편찬을 위해 산봉우리 이름을 찾아 나섰는데 당시 탐곡 거주 김영조씨(74) 등 마을 어른들이 송낙봉이라고 했다고 기술했고 있다. 상백운암 주지인 정문스님은 "백운산 정상 이름은 송낙봉이 맞으며 상백운암에서 수행했던 진각국사 문집에도 송낙이란 구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백운산 정상이름이 송낙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향토사학자들은 광양시가 명산 제 이름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희서 전 광양문화원장(77)은 "백운산 아랫 마을 주민들이 옛부터 봉우리 이름을 송낙봉으로 불러 왔다면 시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사료 등을 찾아 명산인 백운산 최고봉의 이름을 되찾고 명명해 후세에 이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구례군은 전남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조기검진 전문의 진료'를 전격 재개한다. 사진제공=구례군

구례, 치매 조기검진 전문의 진료 재개

전남대병원과 협의...단계적 확대 추진

구례군은 전남대학교병원과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조기검진 전문의 진료'를 전격 재개한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파견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매 조기검진·진료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전문의 파견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월 1회 신경과 전문의를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해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경심리검사 등을 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향후 의료 여건이 안정되면 전문의 파견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전남대학교병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장흥,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6일까지 이용상황 확인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만47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로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지확인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형상·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하고,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마쳤다. 군청 행복민원관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